

# 끝나지 않은 전남-경남 '바다경계 전쟁'

### 대법원 확정 판결 불구 경남도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전남도·여주시 등 대책회의... "팀 꾸려 치밀하게 대응할 것"

대법원 확정 판결로 끝난 줄 알았던 영·호남 바다경계 다툼이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이하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개됐다.

13일 전남도·경남도, 여주시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현재에 전남·경남도 해상 경계(자치권한의 경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전남해역(여수)을 침범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지역 멸치잡이 어부들에 대한 최종 심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경) 경계로, 이를 침범한 조업은 유죄"라고 판결했는데도, 경남도가 대법원이 인정한 해상 경계를 인

정할 수 없다며 다툼을 현재까지 끌고 올라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현재가 심판하는 제도로,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가 확정될 경우 경남도, 남해군의 자치 권한이 침해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현재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 1973년 국토정보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①선·대법원 판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1982년 이전 수산자원보령 기준으로 경계선(②선)을 확정하고 ▲(예비적으로) 행정관습에 따라 경계선(③선)을 확정해달라고 주장했

다. 수산업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면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 경계를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①선)이 현재에서 인정되지 않고 경남도의 주장(②~③선)이 받아들여질 경우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어업인들은 어장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바다 경계선이 왼쪽(전남 쪽)으로 대폭 이동하면서 한눈에 봐도 전남도 관할 바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 현재로부터 권한쟁의 심판청구 통지문을 접수받은 이후 여주시, 수산단체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대법원 판례(국토정보지리원 지형도상 경계)를 토대로 '반대' 의견서를 작성, 현재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기본적으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대법원이 수산업

법 유무죄를 가리면서 도간 해상 경계로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경계는 단순히 지형도상 선 구별을 위해 임의로 그 선으로 도간 경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계를 경남도가 현재까지 끌고 가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경남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여수 등 전남지역 어민들의 어업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변호사, 공무원, 수산단체 관계자와 팀을 꾸려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수산단체 관계자는 "경남도의 청구가 현재에서 받아들여지면 멸치잡이 어선은 물론 통발, 자망, 유자망 어업 등 연근해 어업 종사자 모두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는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경계를 자치단체 간 경계로 보지만 지난해



7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정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입장에 변화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PC방 업주 잔혹 살인' 난민신청 케냐인 구속

PC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강도 행각까지 벌인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1일 케냐 국적 난민신청자 M(28)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M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살인과 강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M씨는 경찰의 거듭된 설득에도 여전히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5일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M씨는 유치장 내에서도 옷을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 경찰에 제압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가스총까지 사용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M씨의 범행동기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현장 CCTV 자료와 M씨의 옷가지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으로 살인 등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추가 조사 후 14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씨는 지난 9일 오전 광주시 북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PC방 업주 A(38)씨를 살해하고, 손님 B(21)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A씨의 입에 쇠젓가락 등을 넣는 혐기적인 행각을 보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무등산서 두개골 발견 수사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에 동구 무등산 장원봉 주변 능선에서 산골감시원이 두개골 1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과거 인근에 묘가 많았다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묻혀있던 두개골이 빗물이나 야생동물에 의해 파헤쳐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식당 행패·경찰 욕설 50대 벌금형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뇌물 먹었다"며 욕설을 한 50대에 벌금형.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2015년 1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2차래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표현 강도와 지속시간이 심각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개인정보 도용 체크카드 발급 수천만원 빼내 범행 감추려 수백통 '전화 폭탄'

### 피해자 휴대전화 마비...경찰 수사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비시킨 뒤 개인정보를 도용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수천만원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폭탄 전화'가 걸리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카드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수천만원이 사용된 사실에 놀라 경찰서를 찾았지만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북구에 거주하는 A(71)씨는 휴일인 지난 6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남대없는 수백 통의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시달려야 했다.

이날 2시30분께부터 A씨에게 걸려온 전화 등에서 상대방들은 "무슨 돈을 보내라고 하느냐" "누구신데 전화를 달라고 하느냐" "무슨 돈을 갚으라는 말이나"며 A씨에게 항의했다. 30분 넘게 계속된 항의전화로 불안에 떨던 A씨는 결국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서울에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2600만원 가량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범인은 A씨에게 폭탄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A씨가 전화를 끄도록 만든 뒤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서 1970만원어치의 '골드바'를 구입하고, 인근 ATM기에서 6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A씨가 6~7일 이틀 동안 받은 항의전화

와 문자메시지는 모두 300여통. A씨가 영문모를 전화로 불안에 떨던 사이 이미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A씨의 딸은 "범인이 인천에서 어떻게 아버지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은행과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카드사는 "현재까지는 범인들이 A씨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드사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A씨 측은 경찰의 응대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A씨의 딸은 "아버지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은행에 가서 먼저 처리한 뒤 카드사용 내역을 뽑아서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2시간 만에 북부경찰서를 다시 찾아 사건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정지시키라고 안내해드린 것인데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인들이 '파밍' 등의 수법으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발급받은 카드를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부경찰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 명의의 카드 골드바를 구입한 문모(20)씨가 인출책임 것으로 보고 문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주운전 '굉' 13일 오전 7시경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금남공원 사거리에서 나오(여·2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나니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23)씨가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동부소방서 제공>

## 나주자활센터 성추행·최저임금 위반 등 논란

### 50대 여직원 '인권유린' 주장 여성상담센터, 경찰 수사 의뢰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나주지역자활센터가 여직원 성추행 등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로 번질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나주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주모(여·54)씨가 남자동료들에게 언어폭력과 인권유린, 협박,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조사에 착수했다. 언어폭력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

하는 주모씨는 1주일여동안 남자직원 3명과 한 조를 이뤄 나주 관내 면사무소를 돌며 공무원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3만4000원의 일당을 받는 등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대우마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같은 직원 A씨로부터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려가 휴대전화를 빼앗기는가 하면 옆으로 보내버린다는 말을 듣는 등 협박마저 당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여성상담센터는 지난 9일 주씨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상담했으며,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나주경찰도 최근 주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1일 다시 한 번 경찰서로 불러 재조사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직원들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고, 언어폭력의 경우 장난삼아 한 것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주지역자활센터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나주시로부터 연간 6억~7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 사무실 및 오피스가 건물 )

**(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음)

010-7384-78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 특산물권 추천 )	수익성 상가 (주택)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9억3천 → 최저가 3억5천	1.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 토지 평당 180만원 1층~2층 주택 (2층 주택 월세 30만 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8천5백만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 건 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2. 남구 양림동 (토 40평, 건 25평) 희정초등학교 북측, 근간차량가능 감정가 7천1백 → 최저가 7천1백
3. 서구 쌍용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 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3. 동구 산수동 (토 42평, 건 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건물 깨끗, 실업주 주택 적격추천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8천5백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지대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b>수익성상가 (근린주택)</b>
5. 서구 쌍용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문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1. 북구 일곡동 (토 52평, 건 72평) ※ 1층 점포 2층 주택 코너지대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9천8백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 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2.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 2천
	3. 동구 계림동 (토 55평, 건 175평) ※ 총 침포 2층~3층 사무실 겸주택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4. 동구 중흥동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교육**  
경매 이체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론.  
부동산 자격증요인론  
부동산 경매 관습요인론  
가족처럼 일하십시오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